

신비한 여, 성스런 성

김 사 연

인천 만수당약국, 한국문인협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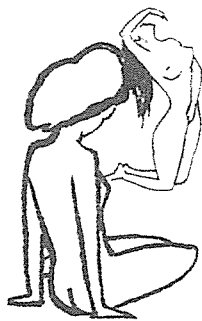
나에게 주역(周易)한방을 가르친 이강희 선생은 '현재는 미토(未土)시대이기에 세분화되고, 후천갑자(後天甲子)시대이므로 음(陰)이 득세하는 시대'라고 시운을 풀었다.

소설 《아버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자녀들과 부인의 목소리가 드세지고, 간 큰 남자 시리즈가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영국 총선에서 아당인 노동당이 승리하고, 여성 정치가가 많이 등장하고, 문화가 발달해 연예계 스타가 각광을 받는 현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 듯 싶다.

나 역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선 남성의 정력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신비스럽고 성스런 여성 건강에 대해서 붓을 들어야 할까 보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남자라면 그 사내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여자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인간의 고향, 아늑한 요람은 어머니의 자궁이었기에 귀소본능의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여성의 질염을 논하고자 한다.

질(膺)은 얇은 근육으로 된 관으로 7~10센티미터의 깊이와 직경 4센티미터 정도의 크기이다. 질관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있으며 자궁과 외부 성기인 외음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방광염(오줌소태)에



자주 걸린다.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면 상피 세포로 구성된 질관벽이 두꺼워진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미숙한 사춘기나 폐경기엔 질관벽이 얇아져 질염에 자주 감염된다.

질의 분비물은 PH가 4.5~5.5인 산성이고 냄새와 색깔이 없으며, 질에 정상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미생물은 질 상피 세포에 있는 글리코겐을 젖산으로 분해시킨다.

각종 자극, 알레르기성 민감증, 여성 호르몬 분비 불균형, 질 종양 등에 의해 질관의 PH가 변하면 질염에 감염되어 백대하가 생긴다.

질염을 일으키는 미생물로는 질 트리코모나스(원충류), 질 모니리아(진균), 임질균 및 용혈균 등이 있다.

질 트리코모나스 균에 감염되면 음부가 가렵고 성교 중에 질 내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와 거품이 섞이고 백색 또는 황갈색의 끈적하

고 악취가 나는 분비물을 배출한다.

치료제는 '메트로니다졸'을 복용하며 남편도 함께 투약해야 재발이 안된다. 보조 치료법으로는 질의 산성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식초산이나 붕산으로 질을 세척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질정을 삽입한다.

모니리아 질염은 진균인 칸디다 질염이라고 부르며 임산부, 당뇨병을 앓은 부인,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오래 복용한 여성, 폐경기 이후의 부인들에게 많다. 희고 맑은 분비물이 흘러나오고 음부가 가려우며 질 자극이 심해진다. 치료제로는 '니스타틴' 질정을 월경 중에도 삽입하고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피부연고제를 음부 주위에 발라준다.

임균성 질염은 질 뿐만 아니라 질 분비선과 질관 저부(底部)에도 감염되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끝난 부분까지 감염되어 난관, 난소궤양이 생겨 불임증이 된다.

질 분비물은 심하지 않고 백색 또는 황색으로 국소 자극과 배뇨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사춘기 소녀가 이 병에 감염되면 질 상피세포층이 얇기 때문에 질 분비물이 많아진다. 치료제로는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나 임질 치료제를 조제해 복용한다.

임균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가 약국에

출두해 판결을 기다리는 부인도 간혹 있지만 '네버, 노 탱큐! 이다.

비특이성 세균성 질염은 특별한 병원균이 없고 질 용혈균과 화농세포로 되어 있다. 회색을 띠고 우유처럼 끈끈한 대하가 나오나 냄새와 가려움증이 없고 단지 질 안이 화끈거리고 성교시 통증을 느낀다. 치료는 설파제 크림을 밤마다 음부에 바르며, 성교에 의해 전염되므로 부부가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결핍되면 질 상피세포층이 얇아지고 질내 PH의 변화가 생겨 약산성이 되므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며, 음문이 가렵고 화끈거린다. 이것이 위축성 질염이다.

노년기 질염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을 치료하려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연고를 질 점막에 바르거나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외에 질관의 PH를 산성으로 유지시켜줘야 한다.

호르몬제에 얽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환갑이 지난 박식한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아프다며 주사약을 사러 왔다. 그분이 찾는 주사제는 진통 효능이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데포메드를'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제인 '데포퀸민'이었다. 기름이 바른 척추에 윤활유를 주사하겠단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두눈이 휘둥그레한 모습으로 약국에 나타났다. 남자 생각이 나서 밤새 한잠도 못 잤다는 것이다. 게다가 젖멍울까지 솟아올라 아프다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한다.

이미 옆질러진 물인데 무슨 대안이 있을까. 반대 효능을 가진 남성 호르몬제를 요구할까봐 겁이 났다. 남성 호르몬제를 맞으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날테니까...

자녀도 과잉 보호하면 사회생활의 생존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약해지듯 호르몬제를 자주 투약하게 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성기능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겐 함부로 투약하지 않는 것이 성 호르몬제이다.

물리적, 화학적 자극과 알레르기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질관이 손상되어 질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질 세척제로 자주 세척하면 질 점막이 상처를 입고 질 세척제 성분으로 인해 질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질 세척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산성을 유지시켜 균의 침입을 막고, 균이 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질관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되새겨 본다면 그런 무지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템포' 생리대를 오랫동안 질 안에 삽입하거나, '페서리'를 사용하면 질 내에 기계적인 자극을 주어 질염을 일으킨다.

20여년 전, '비데'라는 질 세척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여성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으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질 안에 삽입하는 순간 상처를 입히고 청결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질 안에 잡균을 감염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피임용 기구인 '루프'를 끼운지 6개월이 지난 부인들이 요통과 질염을 호소한 것과, 보건증을 갱신하기 위해 단체로 질염 검사를 받은 사람 중 오히려 성병에 감염된 경우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질 세척제, 질정, 질 크림 등의 성분 중 석탄산 유도체와 장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질염을 유발

시킬 수도 있다. 이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온수나 소금물로 질 안을 세척하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질염이 없는 여성은 굳이 질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알레르기 부작용이 없는 세척제를 월경이 끝난 후 질 내부 청결과 산성 유지 목적으로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에서는 1/4갤론의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2차숟가락을 타서 질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자주 보고 싶은 방광염(오줌소태)은 위에 열거한 증상의 복합 질환이라 하겠다. 방광염은 신경이 예민하거나, 소변을 오래 참거나, 심신이 피곤하거나, 냉이나 질염이 심한 경우 짧은 요도를 타고 세균이 방광을 감염시켜 이노 억제 중추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긴다.

인내해서 득이 될 일도 있지만 소변을 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부분은 항생제 '독시사이클린'과 질염 치료제 '메트로니다졸'을 복용하여 원인 균을 치료하면 완치된다. 질 안이 가려울 때는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질정을 취침 시에 삽입하면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신비한 것은 진실을 파헤쳐야 하고 성스러운 것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다. 자신의 보물은 자신부터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소중하게 가꾸어야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경외심을 보내주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말이 있고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명판결을 후천 갑자 시대에 깊이 음미해 보자. **22**